

회양목·산철쭉 수목 가득 산책로 환상의 숲 테마 ‘백년명원’ 눈길

〈단지 내 공원〉

아파트의 미학(美學) 더샵둔촌포레

정문에 조각상 ‘스틸라이프’ 설치… 흥미유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육생비오톱 조성
석가산·팜가든 등 콘셉트 공간도

최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더샵둔촌포레’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검정
색의 깔끔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련됨을 자아냈다.
포스코이앤씨가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과 증축
을 동시에 진행했다.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다.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개시했다. 단지 바로 앞에 선린초, 둔촌중·고
교가 있고 도보권 내에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5호선
둔촌동역이 있다.

인근에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 강동구둔촌도서
관, 일자산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됐다.

지하 2층~지상 최대 14층, 총 8개동 572세대로 신축
3개동은 별도 증축했다. 국내 리모델링 단지 중 첫 사례
다.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지상부는 조경공간으로
구성됐다. 새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를 368대
에서 703대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조합원 세대 내부는 전 세대 전용면적 84㎡에서 93
㎡·95㎡로 확장됐다. 팬트리와 드레스룸을 신설하고
알파룸을 포함해 4개의 룸을 마련해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평면을 구성했다.

세대 천장에 설치되는 배관 및 덕트를 우물천장 밖
으로 배치하는 설계를 적용해 높은 천장고를 확보했
다. 별도증축으로 건립된 일반분양 74세대는 전용 84
㎡, 112㎡로 구성되어 4베이(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수) 구조, 양면개방형 세대로 설계됐다.

단지에는 더샵둔촌포레만의 조경이 눈
에 띄었다. 정문 바로 옆에는 조각
상 ‘스틸라이프(Still Life)’가 입
주민을 반겨준다. 모두에게
친숙한 큐브 형상을 조형적
변화와 반복을 이용해 새
롭게 구상한 작품이다.



단지내 산책로.

/전지원 기자

정문의 녹지 영역을 여러 가능성을 품은 흥미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공간에 경쾌한 리듬감을 부
여했다.

단지 중앙은 회양목과 산철쭉으로 꾸며져 있는
산책로가 펼쳐져 있다. 옆에 있는 티하우스에선 석
가산을 바라보며 쉴 수 있다. 이외에도 자연친화적
인 공간이 많았다.

단지 내 공원 ‘백년명원’의 테마는 아른아른거리는
환상 속 신기루 숲이다. 제주 팽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몽환적인 숲의 정원을 느낄 수 있다.

뒷편에는 육생비오톱이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
가는 공간으로 곤충과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돌무더기, 새집 등과 목련, 팔배나무, 복자기 등 다양
한 식물이 심어져 있다.

윤노리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공간 옆에는 놀이터
‘액티브 그라운드(Active Ground)’가 있다. 귀여운
고양이가 연못 속의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 커
다란 고양이를 따라 함께 낚시를 하며 연못 속 친구들
을 만나는 컨셉으로 꾸며져 있다.

‘팜가든’과 함께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펫가
든’도 조성돼 있다. 커뮤니티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
트니스클럽, GX룸, 작은 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등
을 신설해 입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① 단지내 공원 ‘백년명원’ ② 조각상 ‘스틸라이프’ ③ 육생비오톱
④ 석가산 ⑤ 팜가든.
/전지원 기자